

- 또한 은행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령자를 배려하는 영업점을 구축하고 라이프 플랜 및 사이클에 맞춘 종합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
 -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barrier free화의 추진, 유니버설 디자인 채택 등 고령자를 배려한 영업점을 구축
 -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직원의 고객 응대기술 향상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

- 증권사 및 보험사의 경우 은행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정부 및 협회의 지원과 협조 하에 고령화 대책을 마련 중
 - 증권업협회와 금융청은 고령화시대 자산형성을 위해 2014년부터 NISA(일본판 소액 투자비과세제도)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바, 동 제도에 대한 고령세대의 인식을 환기·홍보하기 위해 NISA추진 Working Group을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중
 - 생명보험협회와 금융청은 간병관련 보험상품 개발시 이용하는 샘플 데이터의 적합성 및 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.

2. 정부

- 고령화에 대비하여 1995년 12월 「고령사회대책기본법」이 시행되었으며, 이 법을 기반으로 1996년 7월 「고령사회대책대강」(高齡社會對策大綱)을 마련

- 2012년 개정된 고령사회대책대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국민연금 후납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,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50%로 하며, 연금액의 특례수준을 인하
 - 무연금자의 경우 가입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가입을 독려하고, 저연금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고령자를 우선으로 연금액을 가산 지급
 -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출산휴가중 사회보험료 등을 면제
 - 국민연금, 후생연금,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, 수납한 보험료를 토대로 수급액을 계산하는 ‘소득비례연금’ 등을 도입